

삼국시기 평양의 역사적지위

문 경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서깊은 도시이며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이 많습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182페이지)

고대에 이어 삼국시기에 들어와서도 평양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그것은 삼국시기가 고대시기보다 한단계 높은 봉건사회였고 평양이 제일 강대한 나라인 고구려의 수도였기때문이다.

삼국시기 평양은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였고 삼국통일과 삼국의 통일적발전의 중심지인것으로 하여 그 역사적지위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제일 높았다.

이 글에서는 삼국시기 평양의 역사적지위를 자료적으로 해설론증하여 이 시기 고구려강성의 일면을 밝히려고 한다.

평양은 삼국시기 고구려의 수도로서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과 삼국통일, 민족의 통일적발전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놀았다.

삼국시기 평양의 역사적지위는 첫째로, 고구려가 제일 강대하였던 시기의 수도였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존재기간 수도가 졸본성(중국 료녕성 환인현),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현), 평양이었는데 평양에 천도한 때로부터 200여년간이 제일 강대한 시기였다.

졸본성은 고구려의 첫 수도로서 B.C.277년—A.D.3년까지 존재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건국초기이므로 주변의 비류국, 행인국, 복옥저, 량맥국, 개마국, 구다국, 동옥저(남옥저) 등 소국들을 통합하여 동서 3 000리, 남북 2 000리의 령토를 차지한 나라로 되었고 이 지역에서 봉건적통치체제를 확립하여 초기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로서 A.D.3년—427년까지 존재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남북방에서 고조선 옛땅을 성과적으로 되찾고 령토확장을 진행함으로써 종전 자기 령역을 크게 넓혀 중기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평양은 고구려의 세번째 수도로서 200여년간 존재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강화된 국력에 기초하여 능숙한 대외활동을 벌림으로써 높은 대외적지위를 차지하고 수, 당나라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침략을 성과적으로 물리쳤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으로 떨쳐 후기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하고있을 때 제일 강대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시기 평양의 역사적지위는 둘째로, 평양이 삼국통일의 중심지였다는것이다.

고구려는 삼국통일의 지향을 가지고 평양을 수도로 하고있을 때 그것을 완성단계에 올려세웠다.

삼국시기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향이었고 역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고구려는 이미 247년과 343년 두차례에 걸쳐 평양에 립시수도를 옮긴 일이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고구려는 427년 평양에 수도를 옮기고 삼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갔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15년)

고구려는 이 시기 신축성있는 활동을 벌려 신라를 견제하면서 백제를 최대한 고립시키고 그에 계속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한동안 소규모적으로 충돌을 자주 일으켜 백제의 국력을 소모, 약화시킨 고구려는 475년 백제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에로 넘어갔다.

이때 백제는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입고 수도도 멀리 남쪽 웅진(공주)으로 옮기지 않을수 없었다.

529년에 고구려는 다시한번 백제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세를 취하여 아산만-금강계선까지 밀고내려갔으며(《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안장왕 11년 10월) 한강이남 금강이북의 넓은 지역에 자기의 군현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임의의 시간에 백제의 수도를 차지하고 항복을 받을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는 신라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였다. 고구려는 481년 신라의 북부 호명성 등 7개 성을 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신라수도로부터 120리밖에 안되는 미질부(경상북도 흥해)에까지 공격하였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왕 3년 3월)

이때 신라통치배들은 백제, 가야군사까지 끌어들여 고구려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고구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하계선을 확보하고 그 이북지역에 자기의 군현들을 설치할수 있었으며 신라통합작전에서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5세기말-6세기 초엽에 남방진출을 다그쳐 아산만-금강-소백산줄기-청하(경상북도 영덕, 후에는 강원도 삼척으로 옮김) 계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의 영토는 내몽골동부 대흥안령산줄기가까이까지, 북쪽은 흑룡강성 남쪽 지역까지, 동북쪽은 흑룡강하류류역에까지 미치고있었다.

고구려는 이 시기 백제, 신라, 가야를 합친것보다 거의 10배나 되는 강대국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영역의 9/10를 차지한 나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5세기말-6세기초에 이르러 고구려가 평양천도후 추진시켜온 삼국통일 위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삼국통일의 성과적추진은 427년 평양천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고 평양은 그 중심지였다.

삼국시기 평양의 역사적지위는 셋째로, 평양이 삼국의 통일발전의 중심지였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은 삼국시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427년 평양천도후 삼국통일의 적극적인 추진과 완성단계속에서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고구려에 의한 삼국통일위업이 5세기말-6세기초에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조선민족의 거의 대부분이 고구려의 단일한 주권밑에 생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세 나라인민들사이의 교류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민족의 공통성과 단일성이 공고화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구려의 발전된 제도와 성과들이 백제, 신라 등에 깊숙이 침투해들어감으로써 우리 민족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구려가 동족의 나라들에 미친 영향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공통성과 단일성은 평양천도후에 세 나라들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중요하게 표현되었다.

우선 정치제도에서 년호와 대왕칭호, 최고벼슬칭호와 군사단위 등에서 고구려가 백제, 신라에 미친 영향이 컸다.

실례로 년호는 매개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서 그 사용정형을 보면 고구려가 372년에 《건시》라는 년호를 썼다는것으로 보아 4세기말이전에 년호를 사용하였

으며 그 영향을 받아 백제는 5세기초에, 신라는 6세기초에 처음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문화면에서 고구려의 선진적인 문화가 427년 평양천도후 백제, 신라에 크게 전파되어 민족의 공통성과 단일성이 강화되었다.

실례로 금속가공기술에서 고구려가 신라에 큰 영향을 미치었는데 5세기 중엽의것인 신라의 봉황무덤에서 나온 은합은 그 형태가 집안에서 나온 고구려의 합과 완전히 같으며 그 밑바닥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의 년호인 《연수》(451년)라는 년호가 기록되어있다.

그밖에도 경상남도 의령지방에서 고구려의 금동부처가 알려지고 그 부처의 조각이 신라의 불상과 비슷한것, 신라무덤들에서 나온 금귀걸이의 제작수법이 약수리벽화무덤을 비롯한 여러 고구려무덤들에서 나온 금귀걸이와 비슷한것, 전라남도 라주군 반남면 신촌리의 백제무덤에서 나온 고리자루긴칼 등은 고구려의 평양천도이후 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427년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양은 삼국시기 제일 강대한 고구려의 수도였고 삼국통일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의 중심지로서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